

# 건축과 조경 (V) 역사속의 건축과 조경

## REPORT

### Architecture and Landscape by Oh, Sang Pyung

오상평 /  
정화엔지니어링 대표 국토개발기술사(조경)

### 3. 우리나라의 전통조경

1. 태백(太白)의 신단수(神檀樹)  
세개의 천부인(天符印) 그리고 풍백(風伯), 양사(兩師), 운사(雲師)와 무리 3천을 거느리고 각, 명, 병, 형, 선, 악(穀, 命, 病, 刑, 善, 惡) 등 인간의 360여사를 다스리며 태백산(백두산) 신단수밑에 신시(神市)의 터를 잡아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환웅천왕(桓雄天王)을 아버지로 하여 단군이 태어나시었다.  
4319년전 신시에 개천(開天)을 하시고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배달의 얼을이어 한반도에 고루퍼져 북은 고구려요 서는 백제 등은 신라가 되었다. 이처럼 우리의 역사를 조상들은 하늘로 부터 비롯된 것으로 믿어 천계(天界)의 신이 강림하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땅 즉, 가장높은 산을 신의 강림지로서 신성한곳 신이 사는 곳으로 믿어 왔다고 하며 하늘은 해가 있어 밝은곳, 모든 생명의 근원을 밝히는곳, 이 하늘과 가장 가까운 높은 산을 가장 신성시하고 밝은산이라 하여 「봉」이란 말의 대자인 백(白) 자가 우리나라 산명에 많다는 것이다. 백두산(白頭山), 태백산(太白山), 소백산(小白山), 백악산(白岳山) 등 이들 산에 단을 차리고 왕이 직접 제천(祭天)했다는 기록은 우리 고대사에 흔한 이야기 이다.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중의 으뜸은 역시 산신이며 산신은 곧 하늘의 신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처에서 각 부족이 살고있는 지역의 제일 높은 산은 진산(鎭山)이 있었고 부족이 합하여지면 신산도 합하여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연지형이 산악이 많은 관계로 모든 생활의 대상이 산에서 비롯되었으며 산이 많아 골짜기도 많고 골짜기 따라 강물이 흐르고 강따라 들이 있어 농사지를 터전이 생기며 숲(산)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이 공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구의 북반구 온대 동북아에 위치하여 기후적인 환경이 춘하추동의 사계절이 뚜렷하며 빙설 풍우가 계절에 따라 명확한 자연환경하에서 살아온 농경문화권의 우리 조상들이어서 자연에 의 도전

보다는 자연에 순응해가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자연적인 배경하에서 태어난 우리민족은 동양사상의 근본인 태극(太極)의 음양오행설을 바탕에 둔 풍수지리 도참설이 발달되게 되었다. 이것이 도시의 계획과 건설및 양택(陽宅)과 음택(陰宅) (건축과 묘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고유의 전통적인 건축물 공간의 배치이용, 부지선정 건축물의 구축, 담장의 축조 등 건축양식과 정원양식등을 발생시키게 된 것이며 우리는 분명히 우리고유 양식과 전통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 본론을 서술하기 전에 주변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주변에서는 대소의 조경사업들이 수없이 행하여 지고 있다. 일부는 매우 높은 수준에 달하여 국민생활 환경의 질적향상과 조경문화의 창달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것이 대부분이어서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높은담장과 살벌한 철조망속 넓은 대지를 가진 일부 대저택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이름모를 값비싼 정원수와 수많은 골동품들로 장식된 국적을 알 수 없는 기이한 형태의 조경수법으로 아방궁을 차리는 몰지각한 행위 곳곳에 쌓여지고 있는 자연석과 연못 조형물들은 도대체 그 뿌리를 알 수 없이 많으며 신라문화의 역사 유적과 조상들의 숨결이 구석구석 살아 숨쉬는 경부고속 도로변 남쪽의 어느 한 고도(古都)에는 진입하는 입구도로에서 부터 허구한 향토 수종을 제쳐놓고 히말라야시다 등을 심는 등 전국의 도시와 개발지역의 녹지대와 공원 가로들에 조성된 경관들은 너무나 임기응변적이고 즉흥적인 처리가 많아 군웅(郡雄)이 활거하는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조경문화의 일대 Chaos를 보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우리 자신을 망각한 세계속에 또한 역사속에 오늘을 망각한 소치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5천년 역사 이래 끊임새 없었던 잦은 외침에 시달려 왔고 허구한 병화(兵火)속에 유구한 역사와 문화 유산들이 대부분 잿더미로 변하여 없어져 버렸고 또한 근세사에서는 19세기의 동서양의 세계역사와 문물이 비약적인 도약을 할 때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서 성씨

(姓氏)마저 빼앗겨 전통문화의 단절과 역사의 말살을 당하는 수난을 겪어 해방후의 일대 혼란 6.25의 민족상잔은 민족의 생존마저 위협당하는 절박한 시대적 환경으로, 그 뿌리를 제대로 찾아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전환기적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60년대 이후 우리는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여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뿐인 우리의 국토를 마구 파헤쳐 놓았다. 우리의 국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당대의 국토가 아니다. 단군성조 이래 우리조상들이 물려준 강토이듯 우리 세대도 자손만대에 물려 주어야 할 오직하나 뿐인 너무나도 소중한 국토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 보다 더 가다듬은 자세로 국토의 건설(각종개발과 건축, 토목, 조경)에 이바지 하는 기술자로서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영원한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문화의 계승전달을 위하여 혼신의 정열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본란을 연재해 오면서 역사속의 조경을 서양과 동양을 비교하고 역사속에서 맥을 더듬어 본 것과 특히 동양의 역사와 조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은 우리의 뿌리를 보다 더 철저히 이해함으로써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오직 하나뿐인 우리의 국토를 가장 우리답게 보존하여 후세들에게 물려주자는 뜻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의 능력이 워낙 천학비재라 그 성과를 얼마나 거둘지 두려운 심정이나 이번의 이 글은 일단 문제점의 제기라고 생각하며 우리 다같이 국토건설의 일선서 뛰는 같은 기술자 입장에서 건축사 제현의 동참을 바라는 마음 간절한 따름이다. 참고사항으로서 우리의 고대 건설사는 그것이 원형으로 보존된 것이 극히 희소하며 기록상 자료에 의존하여 추정으로 정의한 부분이 많은 것에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 2) 창조의 시대(고대 - 통일신라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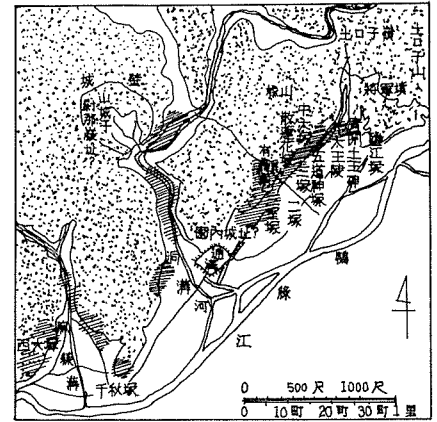
대동사강 권6 단씨선기(大東史綱 卷六 - 檀氏鮮記)를 보경 유자조(庚子條)에 노을왕(魯乙王)이 즉위하여 처음으로 유(囿)를 만들어 짐승을

길렀다는 기사가 있다.

유(囿)는 나라동산(원유단)이라는 뜻으로 새와 짐승을 놓아기르는 동산으로서 우리나라 기록상 최초의 정원이라 볼 수 있고 기원전 약 2000년경(약 3,900년전)의 일이다. BC593 기자조선 의양왕(諡讓王) 원년 정축(丁丑)에 청류각(清流閣)을 후원에 세워 군신과 더불어 큰잔치를 벌였다는 기록이 역시 대동사강에 있고 의양왕의 9대 손인 수도왕(修道王)인 정유(丁酉) 11년에 패강(溟江 : 지금 대동강)속에 신산을 쌓아 올려 그 위에 누대(樓臺)를 만들어 금벽(金碧)으로 장식했다고 하며 수도왕의 7대 손인 제세왕(濟世王) 10년에는 동지로 부터 수일지나뒤 관원의 도리(桃李)가 만발했다고 한다. 이 시기는 B·C 180년대이며 전한(前漢)의 초기로서 무제(武帝)가 장안(長安)에 상림원(上林苑)을 축조하기 시작한 건원(建元) 3년보다 약 30년 앞선 시기로서 이때 이미 복숭아와 자두나무 따위가 즐겨 심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전한(前漢) 선효제(宣孝帝) 왕봉원년(王鳳元年 : B·C 57) 박혁거세가 서라벌(徐羅伐)을 세웠고 20년 후인 B·C 37년에 주몽(朱蒙) 동명왕(東明王)이 고구려를 세웠으며 19년 뒤인 B·C 18년 주몽의 아들인 온조(溫祚)가 하남위례성(河南尉禮城)에(지금의 廣州지방) 도읍을 정하여 국호를 십제(十濟)라 하였는데 이것이 백제(白濟)의 건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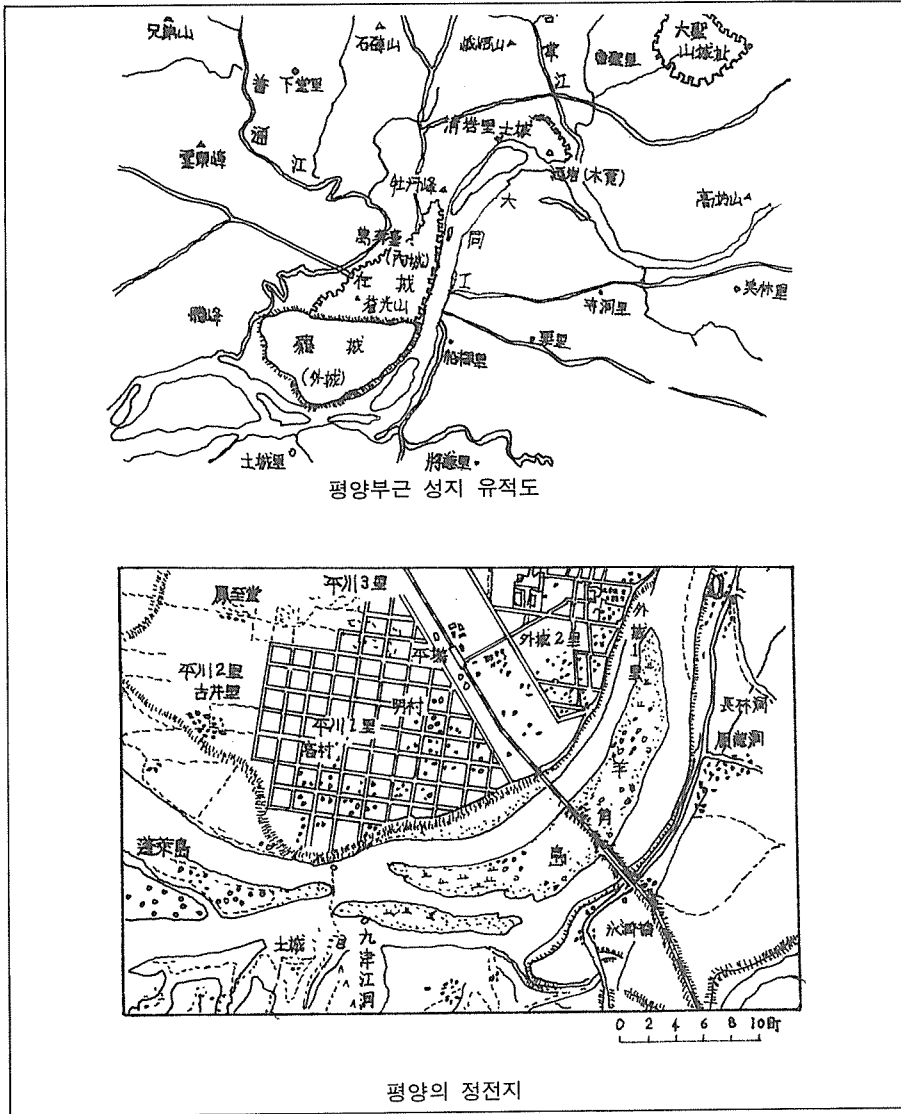
### ㉔ 백제

백제는 나라를 세운지 20년 되는해(A·D 2년) 2월 한산성(漢山城 : 지금의 서울부근)에 제천단(祭天壇)을 쌓아 천지(天地)에 증춘(仲春), 증하(仲夏), 증추(中秋), 증동(仲冬 : 冬至)의 4증(4仲)에 걸쳐 왕이 직접 제사를 지냄으로써 국민안을 빌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고대인들로부터 전해지는 자연숭배(천신, 산신에 대한 제사)의 전통인 것이며 이러한 제단주변을 정결히 꾸미고 가꾸는것이 원시적인 조경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한산성(漢山城)은 온조왕이 하남위례로부터 도읍을 옮겨 간후 축조왕(蓄幽王)이 고구려의 침공으로 웅진(熊津)으로 천도하기까지 약 400여년간 도읍지



通溝부근의 고구려 유적도

였으나 그 정확한 위치와 유적은 찾을길 없고 다만 지금 올림픽 경기장이 위치한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방이동 삼전동 일대의 백제고분로 주변으로 보고 있으며 그 유적들이 최근에 발굴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며 이 시대의 건축규모 양식등은 아직 정확히 고정되지 못하고 있다.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 왕조는 성왕(聖王) 16년에(538) 다시 국부를 사비(泗水)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 하였으며 30대 무왕(武王)때는 사비궁(泗水宮)을 크게 중수하고 사치가 극에 달한 생활을 즐겼다고 한다.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는 무왕(武王) 35년 갑오조(甲午條)에 二月白濟王 興寺成, 寺臨水壯麗, 創自法王時至是告成(一名彌勒寺) 王每乘入寺行香, 又穿池於宮南, 引水二十餘里注之, 回岸植楊柳池中築島嶼, 擬方文化仙山 이와같이 왕흥사(王興寺)를 이룩하는 한편 이궁에 큰 연못을 파고 仙山을 축조했다고 하는데 왕흥사는 사비성의 후원인 부소산(扶蘇山)의 낙화암에서 서북방향 백마강 건너 남쪽으로 자리 잡았던 사찰로서 현재는 대부분 경작지이고 그 유적만 남았을 뿐이다. 1965년 문화재 관리국에서 1/3정도 복원되어 주위 물가에는 능수버들이 심어지고 못가운데 섬에는 루각이 세워지는 한편 호안(湖岸)으로 부터 섬을 향해 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이 소위 남궁지(南宮池)로서 이 연못은 무왕모후(武王母後)가 거처로 삼았던 이궁의 정원 연못인데 당초는 3만여평 이었으나 복원은 9,500평 정도라고 한다. 연못속의 섬은 방장선산을 상징시킨 것으로서 이것은 한(漢)나라때 금원(禁苑)인 태액지



궁궐의 조영이나 성곽은 어느정도였을 것이라는 것을 능히 짐작하게 할 것이다. 고구려 문화의 특색은 자주성과 그 규모의 방대함에 나타나 있다. 고구려는 중국이나 서역의 문화를 받아들여 일단 이것을 정리한 다음 남으로 백제와 신라에 전달하였다. 일찍부터 한(漢)의 4군(四郡)을 통하여 중국문화를 받아들여 많은 영향을 입었으나 낙랑시대에 문화가 극성하였던 대동강 유역을 점령하면서 부터는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소수림왕 2년에는 태학을 설치함으로써 한학이 크게 성했고 불교도 같은해에 공인되어 신라와 백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유교와 불교 이외에도 음양오행 사상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말기 때는 당나라로부터 도교가 들어와 주로 귀족들 사이에 불로장생과 신선사상이 크게 유행하였다. 그러나 라당연합군에 의해 멸망의 화를 입을 때 궁궐이 모조리 불타 없어지고 대대로 내려오던 보물과 역사의 유물들이 한줌의 재로 없어져 그 문화의 창성했던 면모는 몇몇의 고분과 사지(寺址)에서 나온 유물을 가지고 추측할 뿐이며 특히 정원에 관한 것은 사적에 기록되어 있는 약간의 기록만으로 더듬어 볼 수 밖에

별도리가 없다. 동사강목(東史綱目)에 의하면 2대 疏雅王은 즉위 22년에 (AD 3년) 만포진(滿浦鎭)의 대안인 통구(通溝)로 천도하여 국내성을 조영했고 그곳에서 서북으로 약 3km 떨어진 험준한 산속에 위군암성(慰郡巖城)이라는 산성을 축조했다. 국내성은 왕궁지(王宮址)로서 동서가 약 830M 남북이 610M에 걸쳐 밑넓이 약 9m 높이 약 6m의 성벽으로 쌓였으며 동서의 성문은 응성(雍城)으로 축조되었다 한다. 유채왕이 10월에 천도하고 그 다음달인 11월에 질산(質山)에 사냥하러 나갔다가 닷새동안 그곳에 머물러 환궁치 않았기로 대보협부(大輔 陝父: 왕의 보좌역)가 왕의 잘못을 간하였더니 왕이 이 간언을 듣기 싫다하여 그 직위를 해제하고 궁원(宮園)을 맡아보는 비천한 자리로 좌천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기록을 미루어 보면 고구려는 건국초기부터 훌륭한 궁궐의 건축과 궁원의 조경이 발달되었으리라는 짐작이

(太液池)속의 삼신산인 영주(瀛州), 봉래(蓬萊), 방장(方丈)의 세섬을 만들어 불로장생을 회유했던 신선사상을 본뜬 작정(作庭)수법인 것이다. 백제는 한반도의 증부지방에서 개국했으나 결국 고구려의 침공등으로 서해안 지방인 지금의 부여로 천도하게 되었는데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항상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서 군사적인 위협을 당하는 위치였으며 한편으로는 중국대륙과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바다를 통한 왕래가 빈번하여 중국의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 들일수 있어 건축, 토목 등 모든 문화의 수준이 3국중 제일 선진국 수준이었으며 모든 대륙의 문화가 백제를 통하여 신라와 고구려 일본으로 전파되어 가게 할 수 있는 중계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 예는 허다하여 일본의 경우 백제의 박사 왕인이 한문을 전하였고 동양최고

(東洋最古)의 목조건물인 법륜사(法隆寺)도 백제 장인의 손에 의해 세워졌으며 612년에는 백제인 노자공(路子工)이 추고(推古)천황의 궁원 남정에 수미산(修彌山)을 축조한것 등을 볼 수 있다.

#### ⑥고구려

동명성왕이된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기 위하여 부여를 홀로 탈출할 때 부자의 신표로서 有七稜礎石(일곱모난 주춧돌) 밑에 묻어 두고간 부러진 칼 끝을 찾아낸 유이는 홀로 불류강(沸流江) 유역의 고구려로 찾아가 붙여진 칼끝과 붙여진 칼자루를 맞춤으로서 아버지를 만나 그 2대 유리왕(琉璃王)이 되었다는 고구려 건국당시의 전해오는 설화는, 그대로 믿는다면 당시 부여에는 이미 일곱모로 다듬어진 주춧돌을 써서 그 위에 기둥을 세워 집을 지은 고급스런 건축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며 주춧돌이 이러하였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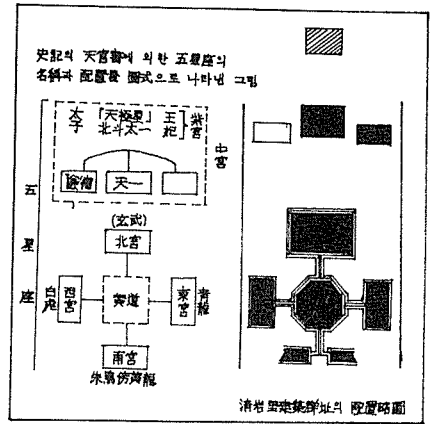
된다.

참고로 동사강목의 일부를 옮겨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王田干質山 五日不返 大輔陝父諫曰  
 王新移都邑 民不安堵 宜刑政是恤  
 而馳騁田塲 久而不返 苦不改過自新  
 臣恐政荒民散 失先王主業 王怒罷其職  
 俾司宮園 陝父憤 去之南韓이라 적혀있다. 372년 소수림왕(小獸林王) 2년에 진왕부견(秦王符堅)이 사자와 부도순도(浮屠順道)가 불상과 불경을 고구려로 전하여 왔는데 이것이 한반도 불교 전래의 기원이며 2년뒤에 아도(阿道)가 오고 초문사(肖門寺)를 지어 순도(順道)를 살게하고 이불란사(伊佛蘭寺)를 지어 아도를 주지로 삼았다고 한다. 이것은 백제의 불교가 전래된것에 비하여 12년이 앞선것이고 신라에 비하면 155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이후 고구려의 불교는 계속 번성하여 광개토태왕 시절에는 평양에 9개의 사찰이 창건 되었고 문자왕(文咨王)때는 금강사(金剛寺)가 세워졌으며 26대 영류왕(榮留王)때는 중대사(中臺寺), 진구사(珍口寺), 유마사(維摩寺), 연구사(燕口寺), 대승사(大乘寺), 대원사(大原寺), 관원사(關原寺), 금동사(金洞寺) 등이 지어졌으며 고구려 불교와 불교건축이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찰조경도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27년 장수왕(長壽王) 2년에는 도읍을 평양의 대성산(大城山) 밑으로 천도하였다. 이 시기는 석제(石濟)의 문주왕(文周王)이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해 보다 49년 이른 해로서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성은 지금의 자족면(柴足面) 내리(內里) 일대로서 대성산 밑을 중심으로 하였고 청암면(淸岩面) 일대에 토성을 쌓아 궁성으로 삼았으며 이곳에서 가장 험준한 대성산에 산성을 쌓아 궁성을 방어한 것으로 생각된다. 장수왕이 평양성 천도이후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그로부터 4년뒤인 양원왕(陽原王) (551년) 7년에는 장안성과 안학궁(安鶴宮)을 축조하고 평원왕 28년(586)에는 그곳으로 천도 하였는데 그곳이 지금의 평양성인데 수(隋)나라 도성제(都城制)의 영향을 받은 규모가 큰 도성으로서 3단계의

방어선으로 이루어 졌으며 북단은 금현산(錦繡山)의 옥단봉에서 을밀대까지 일곽(一廓)을 이루었고 그밖은 구릉을 이용하여 내성을 축조하였다. 나성(羅城)인 외성부분 안쪽에 자리잡은 평양일대 즉, 현재의 평양역 서남쪽 지역에는 바둑판같이 정연한 가로망이 남아있어 소위 기자정전지(碁子井田址)로 불리고 있으나 장안성의 외성을 축조할 때 계획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일제하의 일본 사가들이 조사한 것은 민족문화의 말살정책하의 왜곡된 자료가 많아 그 신빙성이 의문이 가는점이 많으나 1909년 관야진(關野眞)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석표(古石標)의 간극이 좁은 것은 약5M 넓은 것은 13.5M 정도로서 한구획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모두 169m가 되는 정방형으로서 수(隋)시대의 시가지 구획과 흡사하다고 하였고 이와같이 정연한 형상의 정전지(井田址) 가로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평평한 큰 하천들로 포석(鋪石)한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南史」에 의하면 “고구려 俗好修宮室”이라고 하였고 「染四公記」에는 고구려 왕궁속에 한모가 1리(里)가량되는 수정성(水晶城)이 있어서 새벽하늘이 밝기도 전에 낮과 같이 밝았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볼 때 그 당시의 왕궁건축이 매우 훌륭했을 것이라는 사실과 따라서 정원도 이에 필적할 호화로운 꾸밈새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자료로서는 고구려가 멸망한뒤 그 유민들이 동만주 지방에 세운 발해국(渤海國)의 기록인 「渤海國志」의 長編十七 食貨志에 실려있는 아래 귀절을 보면

牡丹 謹案松演記開 渤海富實者 往 孚園地植牡丹 多至三二百本 有數十幹叢生者 比渤海遺虜 之遷於遼陽者 이라 적혀있어 고구려 유민 가운데 재력있는 자들은 저택에 원지(園池)를 꾸미고 원고장이던 요양(遼陽)지방에 자라던 牡丹을 옮겨 가꾸었는데 그 수가 3백내지 2백주가 되었으며 그속에 즐기가



청암리 건축군지의 배치형태와 오성좌의 비교

수십갈래로 갈라진 古木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볼 때 고구려의 정원 그것도 궁궐의 정원은 이것들보다 훨씬 더 호화롭고 아름다웠을 것임은 말할것도 없을것이다.

당시의 왕궁건축은 「史記」 천궁서(天宮書)에 적혀 있는 오성좌위(五星座位)를 따라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와같은 궁실의 배치 기본형은 고구려 초기 불교 건축에도 영향을 미쳐 청암사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불교가람(佛教伽藍)의 배치가 생겨나게 된것으로 생각된다. 청암사의 배치는 남북을 주축으로 하여 불탑지로 생각되는 팔각전지(八角殿址)를 중심으로한 배치법이 하나의 전형을 이루었다는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편 안학궁지(安鶴宮址)는 대성산성 바로 아래 대동강가의 평지에 한모의 길이가 160M 가량되는 토성에 의해 둘러 쌓여 있고 토성의 남북 중앙 부분에 정면 7칸 측면 2칸의 남문지가 있다. 토성은 토석을 혼축하였는데 그 높이는 현존 상태에서 안쪽이 약 1m 바깥쪽이 약 1.6M이라고 한다. 성내토벽을 따라 1.8M폭의 포석(鋪石)도로가 주회(周回)하고 있고 성내에는 못이 있었던듯 하다. 성북벽을 관통하는 물줄기가 못으로 흘러들어 남류(南流)하여 성밖으로 흘러나가는데 물이 관통하는 부분에는 수구문(水口門)을 설치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안학궁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서 전조(前朝)부분의 남북 회랑은 31칸(약 56M)이고 동서회랑은 38칸(약68M)가량된다. 전조(前朝)구역 뒤에는 임금의 상거(常居)구역이 있다. 북만주의 훌륭한 승화강까지 뻗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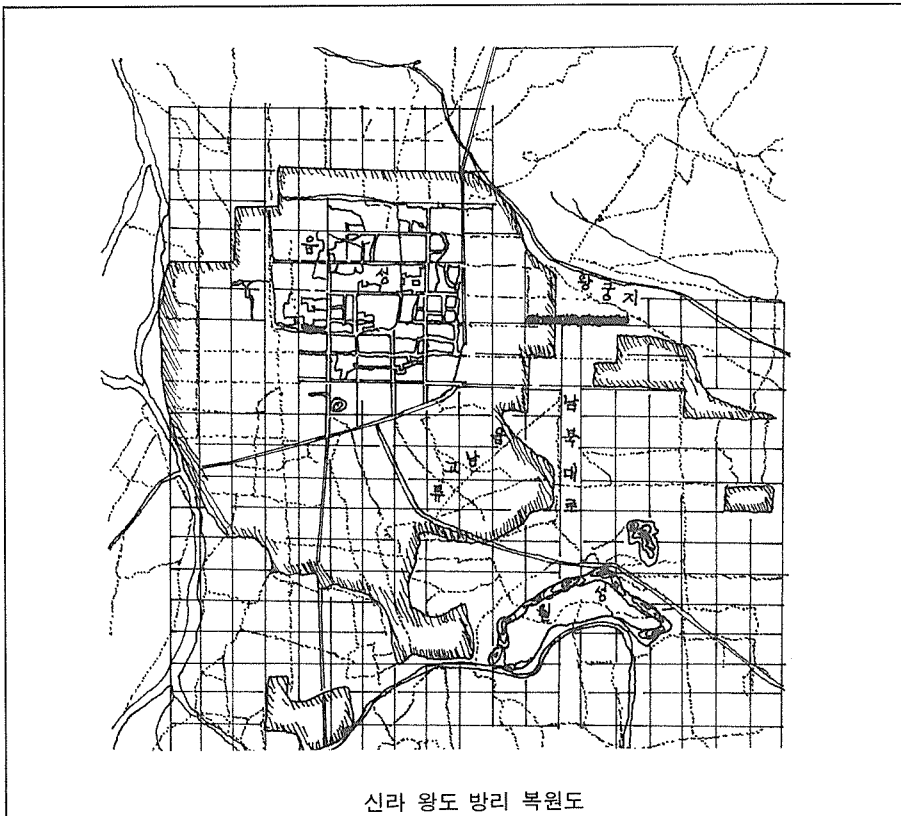
고구려 전성기의 광대한 국토와 국력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당시의 건축적인 안학궁은 그 규모나 일부 잔존하는 정원유구(庭園遺構)로 보아 훌륭한 궁원이 꾸며졌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바이며 것처럼 강대했던 역사와 찬란한 문화 유적들이 거급된 병화로 무참히 파괴되어 오늘날 남은 것은 거의 없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㉔ 신라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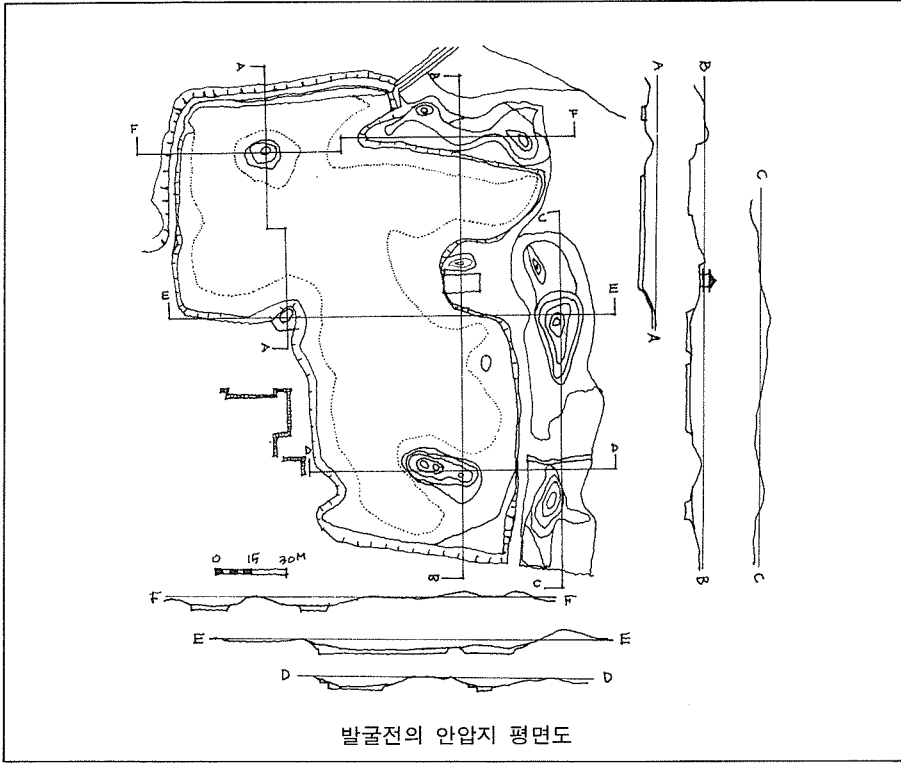
기원전 57년에 서벌(徐伐), 육촌(六村)이 혁거세(赫居世)를 추대함으로써 비롯된 신라는 삼국중 최초의 국가이었으나 개국초에는 3국중 규모가 제일적은 지금의 경주를 중심으로한 조그마한 부족국가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마치 기원전 4세기에 티베르 강가에서 발생한 조그마한 부족국가인 로마가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지중해 연안을 모두 통일하고 찬란한 로마 제국을 건설하여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겨 서구문화의 뿌리가 되었듯이 한반도 동남쪽 경주 지방의 일우에서 그것도 조그마한 부족들이 모여세운 조그마한 국가가 세계의 문화사에 영원히 남을 찬란한 1000년의 신라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영원한 뿌리가 되고 있다.

장안으로부터 황하의 물줄기를 타고 황해를 건너 백마강 하구를 거쳐 백제국에 들어온 원숙한 대륙문화와 북방 만주 벌판의 기마 민족을 거쳐 들어온 고구려의 약간 거친 동양문화가 한반도의 동남쪽인 서라벌에서는 반도적인 신라인의 번뜩이는 예지와 우수한 예술성으로 잘 반죽되어 꽃핀 우리의 고대문화는 그 무수히 많은 신라 유적들을 남김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문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기에 조금도 손색없는 유산을 남기고 있다. 삼국이 정립된 후부터 4세기 말엽이 지나는 동안 북으로부터 流入된 이민을 받아들인 신라는 점점 국력이 커지고 17대 내물왕(奈勿王)때 부터는 지배세력이 강화되어 국가의 기초가 완전히 잡혀 그동안 박, 석, 김(朴, 借, 金) 3성의 교대지배 체제로 부터 김씨의 왕위 세습권이 확립되고 고구려를 통하여 중국의 전진(前秦)과 교통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왜(倭)의 침공을 자주 받던 신라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군사를 보내어 왜군을 몰아내는등 고구려의 지원을 받는 일이 많았다. 520년 법흥왕 7년 율령(律令)과 관제(官制)를 반포하고 15년에는 불교를 공인하면서 국가체제를

크게 정비하였고 서쪽의 가야국을 합병하여 백제와의 동맹을 유지하면서서 백제를 통하여 대륙과도 교통하고 남조의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점점 국운과 문화가 발전하였다. 이후 점점세력이 커진 신라는 낙동강 유역과 한강유역의 기름진 옥토를 확보하고 결국에는 백제를 누르고 고구려의 남진을 막게 되었다. 신라는 건국초기부터 궁실의 조영(造營)은 비교적 검소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며 글해왕(訖解王) 말기에는 부족연맹으로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단계에 머물면서 백제와는 자주 투쟁을 반복하였고 고구려와는 교섭이 없었기 때문에 여·제(麗·濟)양국에 비하여 문화는 매우 뒤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기록에서는 궁실이나 궁원에 대한것이 거의없는 상태이며 469년 제20대 자비마립한(慈悲麻立干) 12년조의 삼국사기를 보면 “定京都坊里名”이라 적혀있어 도읍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감에 따라 시가지를 정비하고 방리명(坊里名)을 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2대 지증마립한(智證麻立干) 10년(509년)에는 “置京都市”라 기록되어 있음을 볼때 양시가 설치되어 상업거래가 활발해지고 도시로의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라의 왕경(王京)은 금성(金城)에서 시작되어 월성(月城) 주축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갔으나 이때는 자연 발생적인 불규칙한 형태로 이루어 졌으며 고신라(古新羅) 말기 부터 시작하여 통일신라 초기에 걸쳐 동쪽으로 향한 황룡사를 중심으로 발전할 당시는 고구려의 장안성과 같이 전정법(田井法)에 의했던 흔적이 있다. 백제의 사비성과 고구려의 장안성은 외성인 나성을 갖고 있었던것에 비하면 신라에서는 나성(羅城)의 형적을 찾아볼 수 없고 대신 주위 산성에 여러개의 산성을 만들어 나성 구실을 시킨것으로 추측이 된다. 왕경 주위에는 남산성(南山城) 명활산성(明活山城), 선도산성(仙桃山城) 등 여러 산성이 있는데 東京雜記에 의하면 명산성은 554년에 남산성은 591년에 축조된 것으로 되어있고 성벽은 화강암이 노출된 산정부(山頂部)에 다듬은 돌로 높이 6m 정도로 쌓아 올렸고 성내는 평지와 몇개의 계곡이 포함되어 있어 음료수를



신라 왕도 방리 복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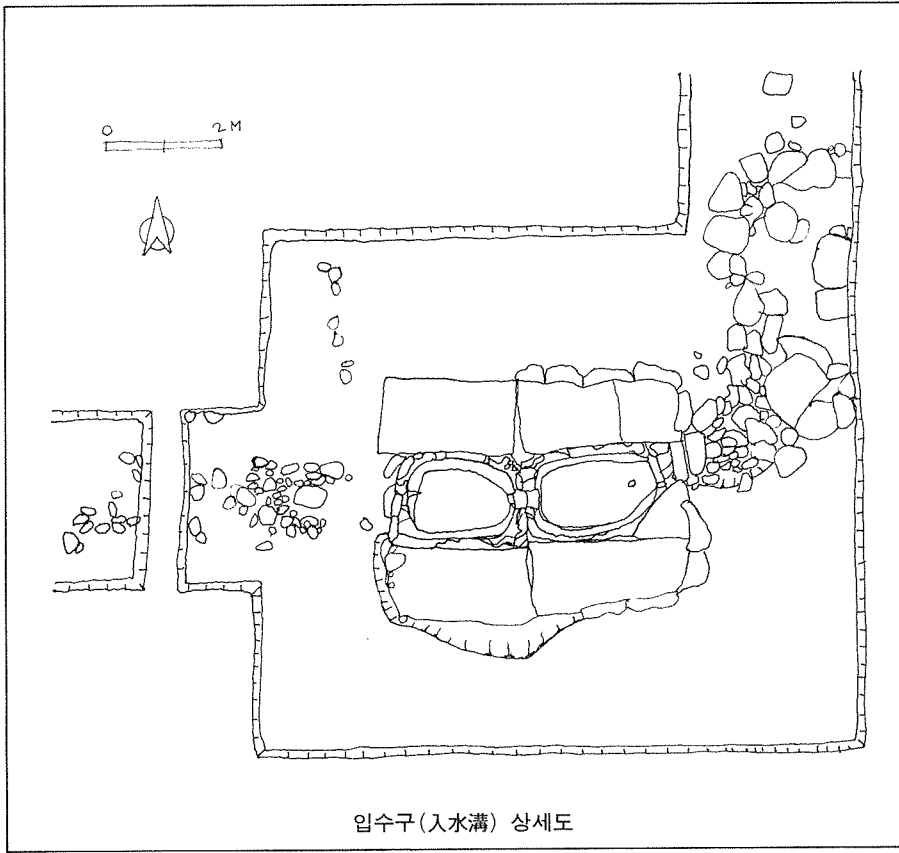
발굴전의 안압지 평면도

연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제23대 법흥왕(法興王) 15년(528)에 그 유명한 이차돈(異次頓)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지게 되므로 신라왕실은 불교의 신봉과 불사조영을 적극화 하게되어 흥륜사(興輪寺)와 영흥사(永興寺)가 창건되고 뒤를 이어 황룡사(皇龍寺)가 세워졌는데 삼국사기에는 진흥왕(眞興王) 14년에 착공 27년에 완공시킴으로서 14년에 걸쳐 건설된 것으로 되어 있다. (大東史綱에는 黃龍寺로 기록 되었음)이 절은 일탑식가람배치(一塔式伽藍配置)로 되어 있어서 중문(中門) 탑 금당(金堂) 및 강당(講堂)의 중심이 자오선상에 놓여졌으며 특히 탑은 9층목조탑으로서 그 높이가 70m에 가까운 우리나라 역사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최대의 목탑이다. 경주벌의 동남부에 위치한 이 사탑(寺塔)은 신라문화의 특징인 동향(東向)문화의 한 상징이며 불도(佛都)로서 경주(慶州)의 경관구성상 중추적인 구실을 하였고 신라 건축문화의 기세높은 상승기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탑은 아깝게도 고려 고종 25년(1238년) 몽고군의 병화로 불타 버리고 말았다.

④ 통일신라 이후  
이후 점차로 국력이 왕성해진 30대

문무왕때(660년경)에는 신라의 삼국통일 대업이 이룩되어 황룡사의 서남쪽 약 400m 사방의 대왕궁이 조영되었으며 다음 대인 신라왕 9년(689년)에는 도읍을 달구벌로 이도(移都)하려는 뜻을 세웠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제32대 효소왕(孝昭王) 4년(695년) 남시(南市)와 서시(西市)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기록으로보아 이 기간을 전후하여 황룡사(皇龍寺)부근을 중심으로한 제 2 단계 도시건설이 진행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 이후 신라는 여러차례 왕경(王京)의 확장으로 시성(市城)이 확장되어 오다가 제49대 헌강왕(憲康王) 6년조(880년)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왕경은 매우 큰 도시로 발전하여 성황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憲康王六年九月九日 王與左右登月上樓四望 京都民屋相屬歌吹連聲 王顧待中敏 恭日孤聞今之民間覆屋以互不茅炊飯以炭不以薪有是耶 敏恭對曰 臣亦嘗不聞之如此라고 기록하였다. 그 당시 왕경도(慶州)에는 기와집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숲으로 밤을 지어 연기가 나지 않았으며 가무가 그치지 않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도시는 크게 6부로 나뉘어져 방이 1,360개 리가 55개나 되었다고 하며 당시의 상주

인구가 100만에 가까웠다고 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불후의 신라 문화는 황금기를 이루어 너무나 유명한 불국사와 석굴암을 탄생시키는 등 남산을 비롯한 경주 일대에 남아있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문화유산들을 남기어 민족문화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축과 조경 측면에서 보면 삼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한 30대 문무왕때부터 왕성하게 조영된 신라 궁궐은 현존하는 것은 없으나 그 유지(遺址)로 볼 때 그 장대함과 화려함 섬세함에는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14년(674년) 2월 궁안에 못을 파고 석가산(石假山)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금기수(珍禽奇獸)를 길렀다고 했으며 19년 2월에는 궁궐을 증수했는데 그 꾸밈새가 대단히 장려했다고 한다. 동사강목(東史綱目)에 의하면 2월鑿池 造山干宮中 王於宮內穿池積孝山 象坐山十二峰 種花卉養珍禽 美西郎監海殿 池今稱雁鴨池 在慶州天柱寺北라 기록되어 있고 지금은 발굴되어 복원된 안압지(雁鴨池)(1974발굴)를 가리킨 것이다. 월성동북방에 당나라 장안성의 금원을 모방하여 무산12봉(巫山十二峰)을 본뜬 석가산을 만들고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에 임해전(臨海殿)을 세워 군신(群臣)과 더불어 연락(宴樂)하는 한편 외국사신을 영접하는 자리로 썼다는 것이다. 안압지는 전체면적이 약 5,100평 정도이며 그 속에는 3개의 섬이 있는데 남쪽 호안부의 큰섬은 300평정도와 북안의 200평 정도되는 중간섬은 기존으로 알려졌던 것이고 중앙의 20평 남짓한 작은것은 발굴후 확인된 것이다. 연못주위의 둘레는 1,260m로서 남쪽과 서쪽 호안은 호안석축으로 조성되어 있고 북안과 동안의 석가산 부분은 자연석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곡선으로 처리되었으며 서안은 다섯 개소의 연못쪽으로 돌출된 건물 기단이 있다. 물속에 잠기는 부분은 자연석을 면만 골라서 안정하게 쌓았고 물위에 노출되는 부분은 장대석(長臺石)을 정연히 쌓았으며 호안석축에서 특이한 것은 석축하단부에 직경 약 50cm 가량의 둥근 하주석(河州石)을 80~120cm 간격으로 석축의 기단에 기대어 놓은것을 볼 수 있었는데



입수구(入水溝) 상세도

이것은 아마 석축 보강의 뜻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안의 상면 곳곳에는 괴석에 가까운 생김의 바닷돌을 배치하여 바닷가 풍경을 재현했고 연못가운데 축조된 세개의 섬에도 역시 호안의 돌출부마다 큰 경석(景石)이 하나씩 놓여있다. 세개의 섬은 신선사상에 입각한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州)의 삼신산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건물지인 돌출 부분에서 바라보면 두개의 큰섬은 남북에 위치하고 작은 정호석(庭湖石)의 섬은 중앙에 자리잡아 있음으로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힌 안정감을 준다. 섬의 배치를 남북으로 한것은 동쪽에 위치한 석가산과의 상대적인 조형의식에서 나온것으로 보이며 섬과 석가산 그리고 서안에 위치한 건물군을 연못속에 폭 안기게 함으로서 외부와 격리된 아늑한 환경을 연출하고자 했던 치밀한 조경계획의 비범한 수법이었음을 읽을 수 있게한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한 안압지의 구조에서 신라의 동향문화의 한 사상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동향 즉 해뜨는곳, 밝은 하늘의 숭배사상으로서 단군신화에서 보는 하늘로 부터의 강림설과도 일맥 상통함을 볼 수 있다. 또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서북안 앞에 위치한 두번째 크기의 섬은 동서 34m 남북30m 정도로서 거의 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서 그 윤곽에는 심한 굴곡과 함께 경석이 하나씩 놓여 있는데 그 생김새가 마치 거북을 보는 느낌으로 되어있다. 일본의 조경축조법속에 학도(鶴島)와 구도(龜島)에 관한것이 있어 구도(龜島) 즉 거북섬은 구두석(龜頭石:머리) 구각석:다리)구미석(龜尾石:꼬리)로 구분되는 경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雁鴨池의 경석축조 수법이 일본으로 전해져 그들 대로의 양식으로 정착된 것이 아닌가 한다. 연못에는 입수구와 출수구가 있게 마련인데 입수구는 남천이 가까운 동남 구석에 있고 “ㄱ”자형으로 세번 꺾인 수로가 건물지와 물가에 동서로 길게 이어졌던 무랑지(廡廊址)옆을 지나 석조(石槽)로 연결되어 있다. 발굴된 수로의 길이는 40m로서 외부(南州)와 연결 부분은 자연석으로 축조되었고 건물 앞으로 부터 유사지(留砂池)로 보이는 석조까지는 거친 다듬을 한 돌로 양쪽을 굳히고 바닥은 사각의 평석을 깔았다. 석조는 2개로서 단을 이루고 있는데 각각 길이 2.35m 넓이 1.6m 깊이 32cm로서 윗것은 서쪽

가장자리가 곡선을 이루고 아랫것은 동쪽 가장자리로 둥근 곡선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형상은 흐르는 물을 감돌게 하여 유속을 낮춤으로서 침사(沈砂)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배려로 판단된다. 석조의 양쪽가에는 넓은 반석을 깔아 약 20cm쯤 낮게 주위를 곡선형으로 다듬은 돌로 굳혔으며 수로를 통해 흘러간 물은 자연석 수로를 따라 아래 설치된 약 3평 가량의 자연석 못으로 일단 꺾였다가 자연석 수로를 따라 작은 폭포를 이루면서 안압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물이 떨어지는 위치의 못 바닥은 큰 반석을 깔아 흙이 패이는것을 방지해 놓았다. 건물 옆을 흐르는 수로와 입수구(入水溝)의 배치는 일본의 동원시대(藤原時代: 850~1068)에 발달한 침전식(寢殿式)정원의 연못물을 끌어 들이는 유수(遺水:아리미스)수법과 비슷하여 이 안압지의 수법을 본뜬 것으로 추측된다. 출수구(出水溝)는 연못의 북안서편에서 발견되었으며 수문은 호안석축면에 장대석을 기초로하여 그 위에 비좌석(碑座石)을 올려 놓고 碑를 세워 개석(蓋石)을 덮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장대석과 비좌석 사이에는 직경 18cm의 구멍을 뚫어 나무마개로 막고 비좌석 윗부분은 8cm의 홈이 만들어져 물이 흘러가게 함으로서 수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심은 2m 정도로서 못바닥은 강회로 다져 놓았고 바닷가의 조약돌을 전면에 깔아 놓았었다. 이것은 안압지의 연꽃을 가꾸지 않았던 것을 추측하게 한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궁궐 건축의 유지(遺址)로서는 임해전지(臨海殿址) 외에 포석정지(鮑石亭址)가 남아 있으나 7세기말에 지어진 壤宮(676년) 永昌宮(677년) 講武殿(677년) 石司祿館(681년) 崇禮殿(687년) 및 8세기초의 新宮(717년) 중엽의 明新宮(748년) 9세기의 瑞蘭殿(801년) 東宮壹壽房(812년) 月池宮(822년) 月正宮(879년) 등과 그의 수많은 목조궁궐 건축물들은 그흔적조차 찾을길 없으나 당시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여타의 건축물을 볼때 그 규모와 장엄함과 화려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정원 축조 또한 수준에 상응하였을 것으로 보여 진다. (다음은 고려조 이후)